

영어 발음의 정확성(accuracy)과 유창성(flucency) 구분에 대하여

안 현 기
(서울대학교)

On a Distinction Between Accuracy and Fluency in English Pronunciation Teaching in Korea.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1, 84-96.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6th National Curriculum, English pronunciation teaching in Korea has geared toward *fluency*, less focusing on *accuracy*. Since then the two technical terms, *accuracy* and *fluency*,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EFL literature in Korea, but in a rather confusing way. This paper is an endeavor to clarify these two concepts in terms of the viewpoints of Phonetics and English Education. From the phonetic standpoint, I argued that *accuracy* is more closely related to 'clear speech,' whereas *fluency* is applicable to either 'clear speech' or 'casual speech'. I also suggested two methods for the evaluation of English speaking fluency: one is the evaluation of weak form pronunciation: the other, sentence stresses. From a viewpoint of English Education, I reviewed some relevant literature and found that (1) *accuracy* and *fluency* are related to language usage and language use, respectively; (2) *accuracy* and *fluency* have been used as terms applicable to all four language skills in language learning, rather than speaking skill only; (3) a definition of *fluency* needs to be modified for its flexible use in ESL/EFL classroom setting; (4) a number of recent textbooks on pronunciation teaching include lots of useful fluency enhancing practices. As a conclusion, I summed up afore-mentioned discussions and presented some suggestions for the National Curriculum in the future.

I. 서론

한국의 중등 교육의 변천사에는 국가교육과정의 변천사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중등 교육의 한 부분인 중등 영어교육도 국가교육과정의 개정에 의해 교육의 목표 및 지향점이 변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어교육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분야 중 하나인 영어 발음 교육도 동일한 변천의 단계를 거쳐 왔다.

지금은 잘 알려진 발음의 정확성(accuracy)과 유창성(flucency)의 구분 및 유창성의 정확성에 대한 우위(flucency over accuracy) 개념도 1995 년에 도입된 제 6 차 국가교육과정에 소개되면서부터 폭넓게 영어교육관계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변화의 이면에는 1980 년대에 이르러 외국어 교육의 국제적 주류로 자리 잡은 의사소통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의 철학과 방법론의 영향이 있었다. 특히 발음교육의 측면에선 개별 분절음 발음의 정확성만을 강조한 이전의 영어교수법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그 때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된 강세, 리듬, 억양 등의 초분절음의 역할을 중시하게 된다 (Pennington, 1996). 이와 같이 발음교육에 있어서의 초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제 6 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로 도입되는데, Kwon(2000:61)은 이를 유창성의 정확성에 대한 우위 개념으로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 Fluency over Accuracy

Another important change in the 6th Curricular is the shift of focus from accuracy to fluency.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ccuracy was abandoned: rather, it advised that teachers and students be concerned with speedy processing of information through the English language, without being inhibited by too much attention to accuracy.

이제 제 7 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부가 편찬한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2 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고등학교)’(1999: 172)에 의하면 교과서 집필시 내용 선정과 관련된 유의점 중 하나가 다음의 항목이다.

(2)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언어 사용의 유창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한다.

(2)의 기술에서는 정확성이라는 표현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오직 유창성의 신장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다. 넓게 이해하면 유창성의 신장이 정확성 신장 보다 더 중요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흐름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찬한 ‘영어·수학 교육과정 개정고시(제 2006-75 호, 06.8.29)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06:32)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 내용의 선정시 유의할 점 중 하나로 다음의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3)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사용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정한다.

(4)에서 ‘분명한 말씨’란 글자 그대로 단어 하나하나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으로 발음의 정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방송국에 근무하는 아나운서의 발음처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의식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거나, 혹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발음 방법이 해당 될 것이다. (4)의 ‘평상시 말씨’란 ‘분명한 말씨’와 달리 발음에 대한 의도적 관심 없이 무의식적으로 편하게 발화하는 경우이다. 친한 친구와 대화하거나 가족과 대화할 때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경우이다. ‘분명한 말씨’에 비해 말의 속도는 빠르나 개별 단어 발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자의 일방적 전달이 전제되는 ‘분명한 말씨’와 달리 화자와 청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전제되는 발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기에 있어 (4)와 같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 발음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듣기 기제와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듣기 기제는 다음의 (5)와 같은 공식으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다.

(5) 청해 (Listening Comprehension) = $f(\text{음성신호}(\text{signal}), \text{지식}(\text{knowledge}))$

위의 (5)의 공식에 따르면 청해(Listening Comprehension)란 뇌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인지(psychological perception) 과정으로 음성신호(signal)와 지식(knowledge)을 두 개의 변수(variable)로 취하는 함수(function)의 결과물이다. 음성신호란 화자의 조음과정을 거쳐 만들어 지는 물리적 신호 에너지로 공기와 같은 신호전달매체를 통해 청자의 귀에 전달된다. 지식이란 음운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 등의 해당 언어 자체의 지식은 물론 세상사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지식을 지칭하며 듣기는 물론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모든 언어활동의 근원(source)이 된다.

음성신호와 지식이라는 두 개의 함수 중 듣기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음성신호이다. 이 음성신호에 화자의 조음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 있을수록 청자는 보다 쉽게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화자의 발음이 분명하고 정확할수록 음성신호의 조음 정보가 풍부해 지고 따라서 청자는 보다 쉽게 화자가 전달하려는 뜻 혹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위의 (4)에 제시된 ‘분명한 말씨’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청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반대로 (4)에서 제시된 ‘평상시 말씨’란 음성신호의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이 그러한 음성정보의 불완전함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자가 화자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가능한 발화법이다. 종합하면, 방송이나 강의 현장 같이 화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말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지식의 공유

정도를 알 수 없으므로 음성신호 정보를 풍부하게 하는 화자의 ‘분명한 말씨’가 상황에 적합한 필수 요건이 된다. 이와 달리 화자와 청자 사이가 많은 지식을 공유할 경우 ‘평상시 말씨’가 소위 의사소통의 경제성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이 된다. 만약 친밀한 사이에서 ‘분명한 말씨’로 대화를 나눈다면 청자는 화자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를 의도적으로 벌리려 한다고 파악할 것이다. 한편 ‘분명한 말씨’를 써야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평상시 말씨’를 사용한다면 청자들은 친밀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화자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말하기란 청자가 누구이고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말하는 것인가에 의해 ‘분명한 말씨’와 ‘평상시 말씨’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진다. 다시 말해 말하기란 청자의 듣기를 전제로 하는 발화 행위로 상황맥락에 의해 구체적인 발화 방법이 결정되는 심리적이고 화용적인 행위이며 역동적(dynamic)이며 적극적인 언어행위이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말하기와 듣기의 기재(mechanism)를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의 주제인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발음의 정확성과 유창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발음의 정확성이 ‘분명한 말씨’를 통한 발음을 의미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CNN 방송의 아나운서의 발음이 ‘분명한 말씨’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유창성은 정확성과 달리 ‘분명한 말씨’나 혹은 ‘평상시 말씨’냐의 기준으로 논의하기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여기서 논의의 편이상 유창성의 사전적 정의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유창성을 정의한 음성학 관련 서적이거나 논문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유창성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fluent’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2002).

(6) fluent. adj. 1. able to speak a foreign language well. 1a. spoken well and without difficulty. 2. expressing yourself in a clear and confident way, without seeming to make an effort. 3. a fluent reader can read without any difficulties. 4. fluent movements are smooth and seem to be done without any effort.

참고로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2003)에 따르면 한국어 단어 ‘유창’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7) 유창 (流暢), 명사, ① 말이 줄줄 나와 거침이 없음. 발음 등이 매끄러워 막힘이 없음. ② 글을 거침없이 잘 읽어 흐르는 듯함.

위의 영어 사전과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에서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발음의 유창성이란 물이 흘러가듯 막힘이 없이 또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창성이 ‘분명한 말씨’나 ‘평상시 말씨’의 어느 하나의 발화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분명한 말씨’를 사용하여도 막힘없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고 ‘평상시 말씨’를 사용하여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영어 발음으로 초점을 옮겨도 (6)의 첫 번째 풀이가 의미하듯 유창성은 막힘없이 또한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발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분명한 말씨’나 ‘평상시 말씨’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의사소통을 중심하는 최근의 의사소통중심교수법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말씨’보다는 ‘평상시 말씨’에서의 유창성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단, 이경우의 ‘평상시 말씨’는 영어가 외국어임을 감안할 때 원어민에게 있어 최소한의 이해가능한(intelligible) 발음이어야 함이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발화에 있어 발음이 용인가능한 최소한의 단계(threshold level)는 넘어야 한다 (cf. Hinofotis & Bailey, 1980).

이제 음성학의 입장에서 유창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는 음운규칙(phonological rules)이 존재한다. 형태소(morpheme)와 형태소(morpheme), 혹은 단어와 단어가 연결될 때에 주로 발음의 편이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해당 언어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언어규칙으로 동화(assimilation), 생략(deletion), 약화(reduction), 연음(linking) 등의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한국어도 영어도 예외 없이 이러한 음운규칙이 존재하므로 외국어로서의 영어나 혹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때 꼭 익혀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영어는 외국인이 발화할 때 유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음운현상을 갖고 있다.

첫째, 영어에는 내용어(content words)와 대립되는 기능어(function words)에 강형(strong form)과 약형(weak form)이라는 별도의 발음형태가 존재한다. 여기서 기능어란 약속된 문법적 기능의 뜻만을 지닌 조동사, 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기능어는 한 단어씩 개별적으로 발음할 때와 문장에서 특별히 강조할 경우에만 강형으로 발음되고 연결 발화(connected speech)시에는 약형으로 발음되는 것이 원칙이다 (전상범, 2005:449-456, Roach, 2000:112-120, Ladefoged, 2006:107-110). 다음 (8)은 강형과 약형의 발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Ladefoged, 2006:108).

(8)	단어	강형	약형
a.	has	[hæz]	[həz, əz, z, s]
b.	he	[hi]	[i, hɪ, ɪ]
c.	to	[tu]	[tʊ, tə]

d. as [æz] [əz]

약형이란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고 위의 (8)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형의 발음의 대표적 특징은 모음약화(vowel reduction)와 음운탈락(phoneme deletion)으로 강형 발음의 약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러한 약형의 발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연결발화시 해당 기능어가 강세(stress)를 받지 않고 또 강세로 인해 만들어지는 강약 혹은 강약약 형태의 운보(foot)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경향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영어는 강세박자언어(syllable timed language)로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은 약화되며 특히 다음음절의 음보로 구성될 경우 마지막에 위치할수록 발음이 약화된 음절이 된다. 음절박자언어(syllable timed language)인 한국어에 익숙한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이러한 약형의 발음은 우물우물하고 불명확하게 발음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고 따라서 영어로 말할 때 약형의 발음은 존재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영어의 유창성 여부는 전체 문장의 발화 속도에 맞추어 기능어의 약형의 발음을 얼마나 물흐르듯이 조절하여 발화할 수 있느냐에 의해 판단이 가능해 진다.

영어의 유창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발화시에 문장강세(sentence stress)가 유지되느냐의 여부이다. 여기서 문장강세란 문장의 억양(intonation)이 아닌 강세의 일정한 박자(beat) 틀로 이루어지는 문장 상의 강세박자를 의미한다. Ladefoged(2006: 115-6)가 설명하듯이 영어의 문장강세는 각 개별 단어의 강세와는 별개로 구분되는 문장상의 발화 특징이다. 이 때 단어의 개별 강세와 문장 강세가 충돌한다면 문장의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문장강세의 단어강세에 대한 우위를 보이는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문장의 리듬을 조율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이 세 가지 경우를 지칭하여 강세조정(eurythm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첫째는 강세이동(stress shift)의 경우이다(Ladefoged, 2006:115). 예를 들어 clariné t 과 só lo 가 합쳐지면 clá rinet só lo 가 된다. clarinét의 두 번째 음절에 있던 강세와 só lo 의 강세가 연이어 연결되는 상황을 피하고 문장강세의 리듬을 확보하기 위해 clá rinet 으로 강세가 이동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강세생략(stress deletion)의 경우이다(Ladefoged, 2006:115). Má ry, yó unger, bró ther, wánted, fífty, chócolate, péanuts 라는 일곱 개의 단어는 각자 고유의 강세가 있다. 하지만 이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 경우 규칙적인 강세박자를 확보하기 위해 Má ry's younger bró ther wanted fí fty chocolate pé anuts 와 같은 문장 강세 패턴을 유지하게 된다. 즉 몇몇 단어는 문장강세의 리듬을 확보하기 위해 고유의 단어강세가 사라진다. 단, 이러한 강세생략은 문장의 발화 속도와 관계있으므로 '분명한 말씨'를 사용하는 경우 각 개별 단어의 강세가 모두 발화될 수 도 있다. 세 번째

문장강세의 특징은 강세창조(stress creation)의 경우이다(Giegerich, 1992: 274-277). 예를 들어 *Jé nnifer must have been in the reféctory* 라는 문장에서 일정한 문장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보통의 경우라면 강세를 받지 않는 기능어에 강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문장의 경우 *Jé nnifer múst have been in the reféctory*; *Jénnifer must have bé en in the refé ctory*; *Jé nnifer mú st have bé en in the refé ctory* 와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강세창조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상에서 논의 하였듯이 문장강세를 적절히 부여하여 소위 영어리듬(English Rhythm)을 유지하는 것이 영어의 유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기능어가 주로 약형으로의 발음 되는 것도 또한 강세창조의 경우에서 보듯 강형으로 발음되는 것도 이와 같은 문장강세유지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 우리는 음성학의 말하기와 듣기의 기재를 이용해 발음의 정확성과 유창성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영어 발음의 유창성의 여부를 결정짓는 두 가지 중요한 영어고유의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해 보았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영어 발음지도 분야에서 정확성과 유창성을 어떻게 논의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III. 영어교육 측면에서의 정확성 및 유창성 논의

말하기에 있어 정확성과 유창성을 이분법(polarity)적으로 논할 때 사용되는 주된 기준점 중 하나는 사용법(usage)과 사용(use) 개념을 대립시키는 것이다. 사용법은 정확성을 논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역할을 하며 반면에 유창성은 사용법에 의해 크게 제한받지 않고 실제 사용 측면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발음의 정확성은 사용법에 의해 규정되므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는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가의 문제와 (예; 미국식 발음 혹은 영국식 발음) 그 기준에 따른 정확한 발음은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발음지도 측면에서는 규정된 정확한 발음을 학습하기 위해 어떤 교육방법을 채택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사실 발음교육(pronunciation teaching)에서 쓰이는 수많은 발음지도 교재는 정확한 발음의 조음 및 그 조음방법을 익히도록 도와주고 훈련시키는 발음 교육 방법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말하기가 외국어 교육의 출발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비록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발음교육방법이 제안되어도 발음의 정확성에 대한 규범화가 발음교육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또한 발음교육의 중심에 음성학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유창성에 대하여 학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Fillmore(1979:93)는 유창성의 특징으로 다음의 네 가지 능력을 언급하였다.

첫째, 오랜 휴지(pause) 없이 말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때 자신의 말을 자체적으로 감시(monitors)하는 기능이 무의식적이며 기계적이어서 하고 또 말의 내용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구문론(syntax)과 의미론(semantics)적으로 완성도를 보이며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세 번째는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번째는 농담을 하거나 말하는 스타일을 바꾸거나 적당한 비유를 들면서 말하는 것처럼 말을 창의적으로 하거나 혹은 상상력을 가미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이다. Fillmore 는 각 개인이 이러한 네 가지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언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언어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Fillmore 는 유창성이 비단 언어자체의 능력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유창성 개념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이는 유창성을 언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Fillmore 가 제시한 유창성의 개념 정의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학문적 공헌이었고 또한 언어교육에 있어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역으로 일반적인 외국어 학습환경에서 구체적인 학습 목표로 활용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Leeson(1975:136)은 언어교육 측면에서 유창성을 ‘해당 언어 자료에 광범위하게 노출됨으로써 음운론, 구문론 및 의미론 규칙에 적합한 무한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Leeson 의 유창성 정의는 Chomsky 방식의 규칙위주의 정의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에 기반하여 현실적인 유창성 개념의 도입을 강조하며 Brumfit(1984:56-7)은 유창성을 ‘언어 학습자들이 습득한 언어기재의 최대한도의 효과적인 사용’으로 정의하였다. 단, 이때 Leeson(1975)나 Brumfit(1984)의 유창성에 대한 논의는 말하기는 물론, 읽기, 쓰기, 말하기는 물론 듣기의 측면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을 주의해야 한다. Brumfit(1984)은 결론적으로 Fillmore(1979)나 Leeson (1975)의 유창성에 대한 정의는 도달 가능한 학습목표로서 한계가 있으므로 유창성 논의를 언어학습 환경으로 한정시켜야 하며 해당언어를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상황중심으로 학습요목을 개편하고 의사소통에 학습목표를 고정시킴으로써 유창성을 학습상황에 맞게 정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Brumf 의 주장은 학습 방법측면에서 유창성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대신 유창성 개념 자체의 정의를 회피하고 방법론적 적용만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굳이 말하기만으로 한정시켜 Brumfit 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정확성 위주의 발음 교육에서 탈피하여 상황의존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에서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에 있어서의 유창성의 개념이라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80년대 이후에 영어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의사소통중심교수법(communicative approach)은 지나친 정확성 위주의 발음교육이 오히려 의사소통능력을 제한시켰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발음교육의 목표를 이동시켰다. 구체적으로 개별 분절음(segments)보다는 강세, 억양등의 초분절음(suprasegmentals)이 의사전달 기능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아 이 분야에 대한 발음교육을 강조하였고, 한편 발음의 정확성 개념을 대신하여 이해가능한(intelligible) 발음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방향 선회에는 의사전달에 있어 유창성이 정확성 보다 중요하다(혹은 우위다)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서론에서 살폈듯이 우리나라 제 6 차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 발전에도 정확성과 유창성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게 처리가 되어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어교육 분야에서 정확성과 유창성의 개념은 말하기뿐 만 아니라, 듣기, 쓰기, 읽기 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념이며 또한 학습발달단계와 학습환경을 변수로 포함시키면 단순한 개념정의는 적용의 효용성의 측면에서 비판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굳이 말하기만으로 한정시켜 정확성과 유창성의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발음지도 위주의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본 저자가 살펴본 발음지도교재에서는 (특히 유창성에 대해서는) 용어는 언급은 되어 있되 여전히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최근의 발음지도 교재에서 보이는 경향은 의사소통중심교수법의 영향으로 분절음은 물론이고 초분절음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자세히 논의하고 있으며, 듣기와 문법과의 관련성도 다루고 있고, 또한 연결발화시의 유창성을 기르는 훈련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cf. Celce-Murcia et al (1996), Orion (1997), Esarey(1996), Teschner & Whitley (2004)). 특히 유창성을 기르는 여러 유익한 훈련을 한종임(2001)은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VI. 요약 및 제언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음성학에 있어 영어 발음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구분하는 것은 영어교육에 있어 그 둘을 구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음성학에서 그 두 개념을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음성학의 틀 안에서 말하기의 두 가지 발화 스타일인 ‘분명한 말씨’와 ‘평상시 말씨’의 구분을 통해 정확성은 ‘분명한 말씨’에서 보다 더 요구되는 것이며 유창성은 그 두 가지 발화 스타일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발화형태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영어의 유창성을 판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기능어를 약형으로 발음하기와 문장강세를 유지하기-을 제시하였다.

영어교육에 있어 정확성과 유창성의 구분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우선 사용법과 사용의 구분이 정확성과 유창성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구분임을 논의하였다. 한편, 영어교육 분야에 있어 정확성과 유창성의 개념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말하기만으로 한정시켜 그 두 개념을 논의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Fillmore(1979)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유창성 능력은 물흐르듯 말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을 포함한 언어 자체의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나아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세상에 대한 지식도 요구되는 매우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능력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Brumfit(1984)의 ‘언어학습자들이 습득한 언어기재의 최대한도의 효과적인 사용’이라는 유창성에 대한 정의가 여러 학문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영어학습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보다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임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의사소통중심교수법의 발전에서 비롯된 유창성 신장에 초점을 맞춘 최근의 다양한 발음지도 경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제 위의 논의를 토대로 서론에서 제시한 한국의 중등영어교육의 토대가 되어온 국가교육과정의 변천사를 정확성과 유창성 개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다. 제 6 차교육과정 이래로 두 차례 더 개정된 교육과정안은 유창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공통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매우 합당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현 영어교육계의 추세와 지구촌화되어가는 환경에서 영어의 공용어로서의 위상을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름 아닌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유창성은 물론 정확성이라는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또 나아가 말하기 모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확성과 유창성 개념이 영어교육의 어느 분야에 관계되는지 명시되지 않고 막연하게 쓰이고 있다. 정확성과 유창성의 개념을 Kwon(2000)에서는 말하기 분야로 한정시켜 해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발췌하여 앞에서 소개한 (2)와 (3)의 조항은 언어의 네 기능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바와 같이 발음에만 관계된 개념이라도 이를 보다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어사용의 유창성 신장하기’라는 표현에서 쓰인 유창성 개념도 보다 분명하게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Fillmore(1979)가 제안한 정의를 따르면 유창성은 이미 갖추어진 능력이므로 신장시킬 교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Brumfit(1984) 식의 개념이 교실의 학습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발음의 (정확성 혹은) 유창성 신장이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목표라면 교과서에 관계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거나 실제 학습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창성을 평가하기 위해 앞에서 논의한대로

기능어를 약형으로 발음하는지와 문장강세를 제대로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다. 네 번째, 발음의 정확성 신장도 유창성 신장 교육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목표임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교육과정에서 유창성과 더불어 정확성의 신장을 강조한 것은 늦었지만 매우 합당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앞의 (3)참조). 당연히 연결발화를 구성하는 각 개별 단어의 발화 훈련은 유창성이 훈련의 원칙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정확성만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 유창성은 연결발화에서만 필요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발화 모델로 소위 ‘분명한 말씨’의 발화모델이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등영어교육 현실을 볼 때 원어민의 ‘평상시 말씨’의 발화 형태보다도 ‘분명한 말씨’의 발화스타일이 교실상황에 사용되는 발화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앞에서 논의한대로 ‘분명한 말씨’의 연결발화는 유창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씨’가 이 둘을 동시에 신장시키기에 보다 적합한 발화형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실 상황에서 한국의 많은 영어 학습자들은 원어민의 ‘분명한 말씨’에 해당하거나 혹은 훨씬 느린 발화속도와 템포로 대화를 하고 있다. 훈련을 많이 받은 높은 수준의 학생이 아니라면 원어민의 ‘평상시 말씨’와 같은 속도와 템포로 대화를 나누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학생들과 대화 할 때 ‘평상시 말씨’의 발화스타일을 버리고 ‘분명한 말씨’의 발화 스타일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분명한 말씨’는 원어민들이 일상 대화에서 채택하는 발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국의 교육 여건상 영어 발화의 현실적인 모델은 ‘분명한 말씨’가 합당 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9).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서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 (고등학교)』.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영어·수학 교육과정 개정 고시(제 2006-75 호, '06.8.29)에 따른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교육인적자원부.
- 국어대사전 (2003). 제 3 판 수정판, 이희승 편저. 민중서림.
- 전상범 (2005). 전면개정판 『영어음성학 개론』. 을유문화사.
- 한종임 (2001). 『영어음성학과 발음지도: 영어교육학적 접근』. 한국문화사.
- Brumfit, C. (1984). *Communicative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The roles of fluency and accu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elce-Murcia, M., D. M. Brinton, & J. M. Goodwin. (1996). *Teaching Pronunciation: A Reference for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arey, G. (1996). *Pronunciation Exercises f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Second Edi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illmore, L. W. (1979).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Fillmore, C. J., D. Kemper, and W. S.-Y., Wang (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Language Ability and Language Behavior*, American Press: New York.
- Giegerich, H. J. (1992). *English phonology: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inofotis, F., & K. M. Bailey (1980). 'American undergraduates' reactions to the communication skills of foreign teaching assistants,' In J. C. Fisher, M. A. Clarke, & J. Schacher (eds.), *On TESOL '80*. pp. 120-135. Alexandria, VA: TESOL.
- Kwon, O. (2000). 'Korea's English Education Policy Changes in the 1990s: Innovations to Gear the Nation in the 21st Century,' *영어교육*, 55:1, 47-91.
- Ladefoged, P. (2006). *A Course in Phonetics*. 5th edition. Thomson Wadsworth.
- Leeson, R. (1975). *Fluency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of American English. (2002).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 Orion, G. F. (1997). *Pronouncing American English: Sounds, Stress, and Intonation*. Second Editi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Pennington, M. C. (1996). *Phonology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gman.
- Roach, P. (2000). *English Phonetics and Phonology: A practical course*. 3r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schner, R. V. & M. S. Whitley. (2004). *Pronouncing English: A Stress-Based Approach with CD-Rom*. Georgetown University Press.